

"파도가 몰아친다" 전시장이 바다로...

August 17, 2020 | 전지현 기자

page 1 of 1

"파도가 몰아친다" 전시장이 바다로...

**국제갤러리 에이스트릭트展
벽면·바다에 대형 멀티미디어
'별이 빛나는 해변' 구현 화제**

어둡고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진 것 같았다. 캄캄한 전시장에 들어서자 거센 파도가 솟구치고 발밑으로 밀려왔다. 물론 실제 상황은 아니다. 자연이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만든 가상현실이다. 전시장 한 벽면과 바다에 대형 멀티미디어 작품 'Starry Beach(별이 빛나는 해변)'를 구현하고 세 벽면에 거울을 붙여 사방에서 파도가 치고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듯하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3관(K3)을 바다로 만든 미디어아트 그룹 에이스트릭트(a'strict)는 "코로나19 시대 도시인들이 좋아할 만한 자연을 담고 싶었다. 파도는 바다에 가지 않으면 접할 수 없어 소재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6m 높이 벽을 타고 힘차게 위로 뻗어 나가는 파도는 사그라들었다 다시 솟아오르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실제 바다에서 찍은 파도 영상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다. 가상 환경에서 물을 만든 후 물결 세기를 정밀하게 계산해 파도를 일으키는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결과물이다. 3분 분량 영상에서 같은 모양 파도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제작했다고 한다. 실감 나는 파도 소리만 실제 바다에서 녹음했고 물결 강도에 맞춰 편집했다. 4개월에 걸쳐 작품

을 제작한 에이스트릭트는 "물성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파도 물결과 모래 움직임을 섬세하게 살렸다"고 말했다.

에이스트릭트는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의 대형 LED(발광다이오드) 스크린에 미디어아트 'WAVE(파도)'를 구현한 디지털 디자인 기업 디스트릭트(d'strict)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착시 현상으로 입체감을 표현하는 '아나몰픽 일루션(anamorphic illusion)' 기법으로 요동치는 파도를 일으켜 외신에서도 화제가 됐다. 햄버거 패티가 지글거리고 신형 휴대폰 CF가 점령한 옥외 광고판에 디지털 공공미술을 선보여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는 "광고주의 요청대로 제작하는 상업 디자인 회사 안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어 예술가 그룹을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8명이 참여했는데 프로젝트에 따라 멤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크리에이터 70여 명이 소속된 디스트릭트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해온 아트테크(Arttech) 기업이다. 다음달 25일 제주에 'ETERNAL NATURE(영원한 자연)'를 주제로 한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아르테 뮤지엄(ARTE MUSEUM)'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시는 9월 27일까지. 전지현 기자

